

J Vet Sci는 이렇게 SCIE에 등재되었다

대한수의학회 JVS 편집위원장

이 홍 식

학습 목표: 해외 서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경험을 통해, 소속 학회 학술지의 등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 1) PubMed, Chemical Abstract 및 SCIE 등재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2) 등재를 위한 준비 과정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3) 영문으로 학술지를 발행할 때 장단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회지는 SCI등재 잡지, 정확히 말하면 SCI-Core Journal 이 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학술지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 Vet Sci)가 이미 2년 전에 SCI-Expanded (SCIE)에 등재되었지만 SCI Core Journal이 되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느 학회와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SCIE 잡지 중 SCI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Thomson Scientific (ISI) 에서는 1년에 2,000여종의 새로운 학술잡지를 심사하여 이들 중 10%를 새롭게 SCIE에 등재하고 동시에 200~300여개의 잡지는 SCIE 재심사에서 탈락되고 있으며 더구나 SCIE 등재잡지 중에서 SCI-Core Journal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흔히 “재산은 모으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SCIE를 지키고 나아가 SCI-Core Journal 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논문을 많이 게재하여 인용 지수(Impact Factor, IF)를 1.0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학회의 목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의 노력, 성의, 관심 그리고 협조가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절실한 문제는 실무에 필요한 많은 재정과 인력이다. 지금까지 SCI-Core Journal이 된 국내 잡지들의 경험으로 보아 이런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SCI-Core Journal은 될 수 없는데도 우리 학회는 물론 모든 학회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SCI-Core Journal이 되는 길은 이런 지원을 무한정 기대하기 보다는 SCI-Core Journal에 전심전력하는 무한의 봉사과 애정 이외에는 왕도가 없는 듯하다.

2000년 6월 창간된 J Vet Sci의 창간 배경과 준비과정 그리고 창간 이후 관리 현황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학술지가 Medline이나 SCIE 등재를 추

진하는데 도움이 될듯하여 이를 주제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1. J Vet Sci 창간 배경

대한수의학회는 수의계의 모학회로 1961년 6월에 국문의 “대한수의학회지”를 발간하여 2000년 당시 통권 100호를 이미 발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1990년 초반부터 연구비 신청, 승진, 승급, 신규 채용, 보너스 지급, 정년 보장, 재임용 등에 필요한 업적을 평가하는 잣대로 SCI 논문이 기준이 되는 바람에 대학이나 연구소 재직자들은 모두가 해외의 SCI 등재 잡지에 논문을 주로 투고하게 되어 국문학회지 투고 논문은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학회도 1997년부터 국문지를 영문지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영문 논문 게재를 늘려 영문 발간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4회 발간 중 1회는 영문논문으로만 발간하기도 하여 장차 이를 발판으로 영문 발간 횟수를 늘려 SCI 등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이것이 무모한 시도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1998년 10월 “대한수의학회 40년사”에서 “수의학회의 전망과 발전방안”의 하나로 영문지의 창간을 제안함에 따라 영문지 창간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회장의 임기가 2년 밖에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SCI 및 PubMed 등재학술지에 큰 관심을 가진 한 회원이 있어 1997년부터 착실하게 SCI 및 PubMed 등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 이어졌고 이 회원이 1999년 회장에 선출됨으로써 영문지의 창간 준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J Vet Sci 창간 준비

학회에서는 이미 SCI 및 Medline 등재 요건을 개략적으로 숙지하고는 있었지만 영문지 창간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 40년의 전통을 가진 국문지를 폐간할 수 없다는 대전제였다. 따라서 영문지를 새로 창간할 것인가 아니면 국문지를 영문지로 전환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SCI 및 PubMed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집행부 자체 내 임원들 간에는 물론 회원 간에도 왈가왈부하는 논란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에서 도출된 여론 수렴 결과는 다행히도 새로운 영문지의 창간이었다. 사실 영문지를 새로 창간하는 것이 SCI 및 Medline 등재에 유리하다는 정보가 유효하였다. 그 이유는 “SCI 나 Medline이나 모두가 자국어로 발행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영문초록이 있어야 된다”는 등재 요건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술지가 되려면 전문이 만국 공통 언어인 영어로 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구나 SCI 및 Medline에서도 높은 점수

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영문지 창간이 결정된 후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만만치 않았다. 우선 1년에 몇 번을 발행할 것인가. 발행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영문원고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영문 잡지 제호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1회 발행 논문은 몇 편으로 할 것인가. 출판인쇄는 어디서 할 것인가. 창간호 표지는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SCI 및 PubMed 등재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등 큰 틀부터 소소한 것까지 수 없이 많은 문제가 연속되었다. 이들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영문 잡지 제호의 작명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학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영문학회지 창간 계획을 알리고 제호를 공모하였다. 영문 잡지명의 전제 조건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한국에 국한된 잡지가 아니라 수의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제 잡지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명칭”이었다. 따라서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와 같이 “Korean”이 들어가지 않는 제호가 되도록 작명하여 응모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의외로 회원의 관심은 너무나 냉담하기만 하였다. 응모자가 단 2명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행부에서 영문지의 제호를 작명하여 회원들에게 제시한 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제호가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International Veterinary Research, Veterinary Science and Research, Archives of Veterinary Sci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등 이었고 이를 홈페이지에 띄워 투표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가장 많은 회원이 택한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가 제호로 결정하게 되었다.

제호를 정한 후에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편집위원 선정 기준을 “최근 5년간 SCI 논문이 가장 많은 저자”로 하여 전국 10개 대학에서 2명씩 기관장에게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SCI 논문이 많은 저명 학자”를 모든 회원이 추천하도록 공지하여 심사 후 결정하였다. 이렇게 SCI 논문이 많은 저자를 우선으로 한 이유는 SCI 평가에 “편집위원들의 SCI논문 편수”가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외국인 16명, 내국인 17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SCI가 요구하는 Editor의 국제적 다양성”을 마련하였고 편집위원회는 2명의 Associate Editor를 두고 이들이 창간에 대한 모든 실무를 맡도록 하되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특별 체제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영문지 창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큰 걱정은 영문 원고였다. 국문지에 영문 원고가 투고되고는 있었지만 그 수는 불과 15% 내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문 논문 중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영어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도록 저자에게 특청도 하고 SCI 논문이 많은 저자에게는 J Vet Sci 창간호에 투고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접수된 원고라도 일단은 심사 후 다시 영어 논문 전문 교열회사에 의뢰하여 영문 교열을 받아 영문지 창간을 준비하였다.

창간호 표지는 출판사를 결정한 후 이 출판사 디자인부에 “국제 감각과 현대 감각

이 표지는 품위 있는 표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10개의 표지 디자인을 받아 역시 홈페이지에 띄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하였다. 본문의 편집 체제는 정말 결정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술지마다 고유의 편집틀이 있고 이를 통해 그 학술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J Vet Sci의 경우에도 J Vet Sci 고유의 틀을 마련하되 누가보아도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정하고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출판사에서 5가지의 틀을 시안으로 보내와 이들 중 가장 잘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본으로 몇 가지 점을 보완하여 결정하였다.

이런 준비를 하는 중에도 PubMed나 SCI 등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수시로 PubMed나 SCI 등재 잡지를 발행하는 학회 실무자를 만나 조언을 청취하기도하고 당시 ISI 한국지사였던 신원데이터네트의 ISI 담당 부장과의 SCI 등재를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 창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수시로 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JVS 창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ISI 담당 부장과의 접촉이 도움이 된 이유는 ISI 담당 부장이 ISI 미국 본사 정보분석실에 4년여 근무한 실무자였기 때문에 살아 있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 J Vet Sci의 창간을 준비하면서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당시 KAMJE 회장과 JKMS 편집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셨던 성균관의대의 조승렬 교수의 경험에서 얻어진 값진 조언이다. 다시 말해서 99년 SCI-Expanded에 등재된 JKMS가 어떻게 하여 SCIE가 되었는지 그 비법을 문의한 결과 “국제잡지가 되려면 무엇보다 SCI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지 정보, 많은 인용 빈도, 국제적 다양성 등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JKMS는 노력하였을 뿐이다”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말씀이었지만 이 한마디는 J Vet Sci창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SCI 등재에 비법은 없고 좋은 잡지가 되도록 누군가가 희생적으로 혼신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0년 6월 30일 드디어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창간호에는 9편의 논문에 실렸는데 매호 10편 내외 게재를 원칙으로 2000년에는 6월과 12월 2회, 2001년에는 4월, 8월 12월 3회, 2002년에는 3월, 6월, 9월, 12월 4회 발행으로 발간횟수를 점차 늘려 이후는 매년 4회 계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출간 비용은 표 3과 4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비로 충당하되 부족한 재원은 전적으로 학회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권1호 1,200부를 발행하였다.

3. J Vet Sci 창간 후 관리

J Vet Sci는 창간호가 출간되자마자 WHO, FAO, FDA, WAHO, OIE 등 국제기구, EPA, Medline, APHIS 등 공공기관과 미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전세계 81개 국가 공공도서관과 관련 대학 도서관 등 기관에 452부를 배부하였으며 Thomson

Scientific (ISI), CAB, EMBASE, EBSCO 등 세계적인 정보 회사들에 J Vet Sci를 보내 J Vet Sci가 새롭게 창간된 수의학 국제 잡지임을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창간 6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회사인 영국의 CAB Abstract 및 Index Veterinarius에 조건 없이 등재되었다.

한편 우리회는 SCI 등재에 앞서 PubMed/Medline에 등재하는 것이 IF를 요구하는 SCI보다 다소 유리할 뿐 아니라 PubMed/Medline에 등재되면 무료로 전세계에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J Vet Sci의 인용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IF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PubMed/Medline 등재에 주력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따라서 PubMed/Medline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창간호를 1년에 2번 발행하였으므로 우리회는 2권 1호가 나오자 2001년 5월 1일에 1년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최근에 발행된 3호(1권1호, 1권2호, 2권1호) 전부와 PubMed/Medline 등재 신청 편지를 PubMed/Medline에 보냈다.

그 결과 창간 1년 반, PubMed/Medline 등재 신청 6개월 만에 생명과학 분야의 SCI라 일컬어지는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세계적인 수의학 분야 정보웹사이트인 IVIS에 링크되었고 이어 USDA의 AGRICOLA 및 세계적인 의학정보 DB인 EMBASE와 생명과학정보 DB인 EBSCO에 등재되었고 2005년에는 FAO 데이터베이스인 AGRIS에 등재되었으며 2006년에는 드디어 SCIE를 비롯해 BIOSIS Preview, Biological Abstracts, Biology & Environmental Sciences, Zoological Records, Focus on; Veterinary Science & Medicine 등에 동시 등재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SCOPUS에도 등재되어 명실공히 국제잡지로서 기틀을 단단히 다졌다. AGRICOLA나 SCOPUS의 경우에는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등재를 신청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학술지의 가치에 따라 자동적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KJR의 경우도 SCI에 등재신청을 문서상으로 한 적이 없고 단지 학술지가 출간되면 꾸준히 SCI에 보내기만 하였는데 SCI에 등재된 예가 있고 우리회도 특별히 SCI 등재 신청을 문서상으로 한 일이 없고 꾸준히 학술지를 창간 당시부터 일정 시기에 계속 송부했다는 점으로 입증된다.

이와 같이 J Vet Sci정보가 전세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창간 당시부터 노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선 많은 J Vet Sci정보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SCI나 PubMed 등재의 지름길이란 판단에서였다.

J Vet Sci는 창간된 지 1년 후에 편집위원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절감하였다. 그 이유는 J Vet Sci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학술지라는 것이 특성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에 따라 지역특성을 강조하기위해 아시아 지역 Editor를 보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1년 6월8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Veterinary Education and Research”라는 주제로 중국,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참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날 연자로 참석한 각국 대표를 모두 J Vet Sci의

Editor로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국제학술지로 세계를 향해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

Medline 등재 후 세계 유수의 정보회사에 Index를 요청한 영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ar Sir;

It is great pleasure to write you. I am an Editor-in-Chief of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VS).

The JVS is an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four times per year and distributed worldwide. It is indexed currently in CAB Abstracts/Index Veterinarius, Index Medicus and PubMed/Medline. Full text and PDF file of JVS are available on the web and PubMed without charge (Please refer www.vetsci.org or www.ncbi.nlm.nih.gov/entrez/).

I am writing this mail regarding the possibility on indexing with your database. Would you please arrange JVS to be indexed? We are willing to do our best to meet your request, if any.

Thank you again for your help and time.

I am looking forward to getting your reply via E-mail (leehss@snu.ac.kr).

Sincerely Yours,

Heungshik S. Lee, DVM, Ph.D

Editor-in-Chief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VS)

J Vet Sci는 창간을 하는데 KAMJE의 큰 도움을 받았는데 J Vet Sci가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고 난 후에 두 번째 도움이 또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J Vet Sci가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된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J Vet Sci가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다면 당연히 KAMJE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조승열 교수께서 KAMJE 회원 가입을 권유하신 일이다. 당시 J Vet Sci의 Medline 등재는 우리나라에서 11번째였으며 의학 분야로서는 7번째였다.

2003년 4월 KAMJE 회원에 가입을 신청한 후에는 KAMJE로부터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그 첫째는 KAMJE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이신 숙대 이춘실 교수의 아주 귀중한 조언이었다. 그것은 Medline에 등재되어 있는 잡지는 Fulltext를 Linkout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세계 모든 학자에게 언제라도 J Vet Sci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Medline의 Linkout을 위해서는 Linkout 실무 경험이 있는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의 편집장이셨던 경희의대 김병호 교수가 주신 정보는 아주 유용하였다.

당시 PubMed에 보낸 LinkOut 요청 서한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다.

Dear Sir;

It is great pleasure to write to you. I am an Editor-in-Chief of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NLM ID 100964185, ISSN 1229-845×). I was recently appointed an Editor-in-Chief of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published by 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In addition, I am charge of the uploading of XML-file for the contents of the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The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is an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four times per year and distributed worldwide. It was indexed in PubMed, Medline and Index Medicus on November, 2001.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want to participate in LinkOut program and providing links from Entrez records to our web resources. Please find two attached FILES, providerinfo.xml and journal.xml. We are going to provide full-text information free of charge. I am getting ready all necessary arrangements for LinkOut.

I'd like to receive your response via E-mail (leehss@snu.ac.kr) soon.

Thank you again for your time and kind cooperation.

Sincerely Yours,

Heungshik S. Lee, DVM, Ph.D

Editor-in-Chief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VS)

이런 인연들을 통해 2004년 1월부터 J Vet Sci는 Medline에 Linkout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Linkout 후에는 J Vet Sci의 논문 인용이 부쩍 증가되었다. 더구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호 정시 발행일보다 2개월 전에 Linkout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흥미롭고 우수한 논문이 많은 탓인지 Medline 접속횟수는 매년 증가되고 경향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매월 접속이 급격히 증가하던 초기에 비하여 이제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Medline 접속횟수는 1달을 20일로 환산하여 하루에 평균 120회 내외 (2007년 1월 2,182회, 2월 2,296회, 3월 3,037회, 4월 2,279회, 5월 2,607회, 6월 2,378회, 7월 1,962회, 8월 2,515회, 9월 2,238회, 10월 2,532회, 11월 2,779회, 12월 2,109회) 월 평균 2,409회 접속되고 있다 이 숫자는 JKMS의 경우 월 평균 8,800회 접속되는 것이 비하면 25%에 불과하지만 수의학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수의학자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제법 높은 접속 횟수이다.

SCI 등재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은 곳은 KAMJE 총회나 워크숍이었다. 그 이외에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간하는 “식품과학과 산업”에 실린 “SCI 등재 추진사업 보고”도 도움이 되었다. 이 글은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시리즈로 발

간되었는데 실무적인 면에서 우리회가 SCI 등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그리고 등재 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J Vet Sci는 SCIE에 정식으로 등재되기 전인 2002년부터 Web of Science의 cited reference를 통해 “J Vet Sci의 어떤 논문이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느 SCI 잡지에 몇 번 인용되었는지” 검색할 수 있었는데 이는 SCIE등재에 큰 보탬이 되는 요소의 하나였다. 지난해 12월까지 발행된 총 J Vet Sci 통권은 28권으로 게재 논문 수는 417편이며 이들 중 외국인 논문은 163편으로 전체 논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매호 마다 외국인 논문이 증가되는 추세로 7권 2호의 경우는 게재논문 20편 중 60%인 12편이 외국인 논문이었다. 투고 논문의 경우에도 이 경향은 두드러져 2004년 총투고 논문 104편 중 외국인 논문 40%였지만 2005년 총 투고 논문 141편 중 외국인 논문이 51%, 2006년 총 투고 논문 231편 중 외국인 논문이 50%, 2007년 총 투고 논문 225편 중 59%인 132편이 외국인 논문으로 매년 외국인 투고가 늘고 있으며 평균 게재율은 35% 정도이다.

표 1. J Vet Sci 논문 접수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외국)
2004	7	5	13	7	9	7	10	6	12	6	15	7	104(40%)
2005	15	13	14	8	9	13	10	12	11	15	7	14	141(51%)
2006	12	10	14	8	18	17	20	31	27	34	28	12	231(50%)
2007	20	14	15	19	17	25	20	20	16	24	20	15	225(59%)
외국	(9)	(6)	(5)	(13)	(10)	(17)	(12)	(12)	(13)	(15)	(10)	(10)	

JVS 게재 논문의 인용은 Nature Medicine을 비롯하여 Curr Opin Immunol, Blood, Cancer Res, Oncogene, J Neurosci, Ann New York Acad Sci, Lancet, Endocrinology, Glia 등의 세계적인 유수 잡지에 인용되었는데 2006년 12월 31일 현재는 172편이 430회 인용되었지만 2007년 12월 31일 현재 발행논문 (348편)의 63%인 220편의 논문이 708회 인용되어 인용횟수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CI-Expanded 등재 후 만 3년 후부터 공식적으로 Impact Factor가 제공되지만 Web of Science에 근거한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2006년 J Vet Sci의 Impact Factor는 0.928로 2005년 0.912에 비하여 10%향상되었으며 이는 2003년 0.108의 8.6배, 2004년 0.308의 3.0배지만 SCIE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현재 수의학 분야 SCIE 잡지는 총 138종이며 이들 중 소위 SCI 잡지라고 일컬어지는 SCI-Core Journal은 68종이다. Impact Factor는 전체 평균이 0.673으로 최고 2.634, 최저 0.017이다. 다시 말해서 Impact Factor 1 이상이 불과 38종(29%), 0.5이상 1 이하 59종(45%)으로 J Vet Sci는 중상위 (44위)에 해당된다.

J Vet Sci가 지령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SCIE 등재 학술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창간 3년 전부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낮은 감이 있다. 그러나 SCI 등재가 늦어진 데는 그럴 만한 요인이 몇가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짧은 회장 임기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2년에 3번이나 편집위원장이 바뀌고 더구나 이런 교체로 발행일을 넘겨 발행하기도 하여 Medline으로부터 독촉 경고를 받은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1년 4번 발간하던 발간 횟수를 3회로 줄이는 등 우여 곡절이 있었다.

이런 경험으로 볼 때 자주 바뀌는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 제도는 SCI 등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을 SCI를 목표로 하는 학술지는 유의하여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 SCI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념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아무리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문편집인이나 편집사무원에게 모든 일을 맡겨 놓고 교외내에 보직을 갖는다거나 교수의 직분인 교육, 연구, 진료에 평소와 같이 충실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SCI 등재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편집인이나 편집사무원은 편집 교열은 잘해도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의학 용어에 대한 오류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편집위원장과 편집인은 전적으로 학회지에만 매달려 조석으로 오직 학회지만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전력투구하는 열정을 갖고 좋은 학회지 발간에 매진해야만 된다.

우리 학술지가 한때 발간 횟수를 3회로 줄인 것은 편집위원장의 빈번한 교체도 문제였지만 이외에 속사정도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문 원고의 부족이 그 원인에 하나였다. J Vet Sci는 2003년에 비로소 학진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2006년에 학진 등재지가 되었다. 따라서 회원들은 학진 등재 후보지도 아닌 J Vet Sci에 투고를 꺼려 결국은 영문 원고의 기근 현상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J Vet Sci가 Medline/PubMed 등재잡지라는 매력에 많은 투고를 해와 이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투고되는 논문의 질이 오히려 국내 수준만도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태리, 스위스, 스웨덴, 호주,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 투고가 많지만 초창기에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등지의 투고가 많았다. 그러나 논문 심사를 철저히 하여 선별함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진흙 속의 보석같이 반짝 반짝 빛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점은 그래도 해 볼 만하였다는 점이다.

표 2. J Vet Sci의 SCI 인용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발행년도	인용논문수 (게재논문수)	JVS 인용횟수		
		총인용회수	타인인용회수	자기인용회수
2000	15편(20편)	54	51	3
2001	25편(35편)	132	114	18
2002	39편(48편)	118	91	26
2003	36편(46편)	104	80	24
2004	41편(59편)	177	148	29
2005	37편(66편)	83	65	18
2006	27편(74편)	40	26	2
총	220편(348편)	708	575	130

4. SCI 등재 기준

모든 학술지가 등재를 선망하는 SCI 또는 SCIE는 Thomson Scientific (ISI)라고 하는 상업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과학정보이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술 정보를 기본 데이터로 제공하는 모든 학술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옳은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Thomson에서는 SCI 또는 SCIE 등재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4.1. 기본출판기준(Publishing Standards) 충족여부

이것은 정시(Timeliness)발행, 국제편집규약(International Editors Conventions)준수, 영문서지정보(English Language Bibliographic Information)정확성, 동료비평(Peer View)실시여부 등이다. 정시성이란 학술잡지발행일 준수여부다. 흔히 정식 발행일이 2월 1일이면 우리는 2월1일에 발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일의 규정이 독자가 받아보는 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선편 발송이라면 최소한 1달 이전인 1월 1일에는 학술지가 발송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편집규약준수는 무엇보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가 권장하는 밴쿠버통일양식이면 이 조건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영문서지정보의 정확성은 서지정보를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회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Thomson에서 SCI 및 SCIE 등재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다. 흔히 잘못 인용되는 경우는 저자명, 논문제목, 시작페이지와 끝페이지, 년도 등인데 이런 서지정보가 반복되면 아예 SCI 심사에서 제외한 점은 명심하여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정보 수요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Thomson사 자체가 치명적인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철저히 심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학술지가 원초적인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당해 학술지의 SCI나 SCIE 등재는 애초에 무위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동료비평은 투고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철저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학술지가 규정에 따라 Peer-review를 실시하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Nature와 Science의 경우 논문탈락율이 85% 내외라는 점은 참고할 만한 정보일 것이다.

4.2. 편집내용(Editorial Contents)과 국제적 다양성(International Diversity)

편집내용은 논문의 내용평가로써 새로운 주제 또는 새롭게 부각되는 주제를 많이 다루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제 또는 새롭게 부각되는 주제의 논문을 많이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SCI로 가는 첩경이다.

국제적다양성이란 Editor 구성이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이 SCI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인용지수가 높은 저명학자인 경우 SCI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SCI 등재요건에서는 자국학자의 논문보다 외국학자의 논문을 많이 게재하여 학문영역을 세계화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논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4.3. 카테고리별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SCI에서 정확한 서지 정보와 함께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인용지수(IF)인데 이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자기인용(Self-Citation)은 적을수록 좋은 평가를 얻게 된다. 따라서 학회에 따라서는 인용 논문 수와 발행논문 수가 반비례하므로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행 논문수를 적게 하는 학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될 소지도 크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요건으로 SCI에서는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몇 %정도가 공신력있는 공공 기관 또는 기업체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연구인가하는 것도 점수화하는데 흔히 이와 같은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되도록 Footnote나 Acknowledgments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J Vet Sci 에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항상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무적인 면에서 SCI 또는 Medline 등재를 계획하는 학술지 실무자가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닐 것이다.

① 인용지수(IF) 향상을 위해 모든 회원은 J Vet Sci에 투고할 때 JVS에 발표된 논

문 중에서 연관성 있는 논문을 www.vetsci.org/pubmed_search.html에서 찾아 인용하도록 권장한다.

- ② J Vet Sci 이외의 SCI잡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도 J Vet Sci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연관성 있는 논문을 www.vetsci.org/pubmed_search.html에서 찾아 인용하도록 권장한다.
- ③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인용지수(IF)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계 저명학자의 Review Article을 자주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논문의 질적 수준을 위하여 현재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되, J Vet Sci에 투고하는 내국인의 논문은 J Vet Sci투고 전에 반드시 Native Speaker의 영문교정을 받아 투고하도록 한다.
- ⑤ J Vet Sci 투고 시 서지 사항을 재삼재사 확인한 다음 투고하도록 체크리스트로 유도하고 논문접수와 동시에 기본적인 서지사항은 전담 직원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다.
- ⑥ 논문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회보하도록 하고 만일 불가능한 경우는 즉시 반송하여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⑦ SCI 심사 기준의 하나가 연구비 수혜에 의한 연구 여부이므로 J Vet Sci 논문투고자는 반드시 연구비 수혜여부를 사사에 밝히도록 한다.
- ⑧ 논문 저자 이름이 투고할 때 마다 다른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통일된 이름을 일관되게 기재토록 계도한다(가운데 자와 마지막 자 사이의 하이픈 여부, 가운데 자와 마지막 자의 대문자 사용 여부 등 Gil Dong Hong, Gil-Dong Hong, Gildong Hong). 아울러 소위 이름 끼워 넣기를 하여 자신도 모르게 공저자가 되는 경우는 저자 서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주의하도록 한다.
- ⑨ 국제규약에 따라 그림과 표를 작성할 때 Footnote의 윗첨자 기호는 반드시 *, †, ‡, §, ||, ¶, **, ††, ‡‡ 순으로 표기하였는지 확인한다.
- ⑩ 그림의 그래프를 작성할 때 선 연결은 국제규약에 따라 ○, ●, △, ▲, □, ■, ● 등의 순으로 한다.
- ⑪ 학술지 발행은 최소한 정규 발행일 1달 전에 하고 전자저널은 40일 전에 발행한다.

KAMJE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은 J Vet Sci가 SCIE에 등재되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학술지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 신임 편집인을 위한 워크숍은 신임 뿐 만 아니라 기성 편집인에게도 편집인이 할 일은 무엇이며 심사위원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2003년 워크숍에서 발표한 편집인의 역할에 추가적인 보완적 의미가 컸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2004년도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의 KJR의 SCI등재 경험이나 KoMCI의 운영 현황 그리고 SCI Impact Factor 향상 방안 등은 학술지 운영에 좋은 가이드가 되었다. 나아가서 2006년에 개최된 의학논문의 출판 윤리에 관한 워크숍은 시의적절한 테마로서 논문 투고자는 물론 편집인이 갖추어야 될 기본자세를 규정하는 아주 훌륭한

한 모임이었다. 2007년에 실시한 Korea PubMed Central Project도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PMC가 오히려 좋은 요건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끊임없이 계획하여 제공하는 KAMJE에 감사한다. 앞으로 이들과 유사한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의학 학술지를 SCI 잡지로 키우고 Medline잡지로 키우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KAMJE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의학 잡지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SCI 및 PubMed 등재 잡지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의학 잡지 발전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